

우리의 야생동물(포유동물) 이야기

유 병 호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복원과장)

포유동물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을 말한다. 약 2억년 전인 중생대 후기에 파충류에서 진화되었으며, 생존하는 포유류 중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 2종은 아직까지 조상인 파충류와 같이 알을 낳는다. 포유류의 특징은 태양광선이나 혹독한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과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털을 가지고 있으며(털 대신 비늘, 가시, 강모 등을 가진 동물도 있음), 두개골과 아래턱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가 있어 음식을 씹을 수 있으며,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온혈(溫血)과 4개의 심방으로 이루어진 심장을 가지고 있고, 뇌가 몸에 비하여 매우 크고 대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8목 146과, 1,192속, 4,800여종이 보고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를 포함하여 8목 27과 124종(육상 포유동물 6목 19과 83종, 해양포유동물 2목 41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7종은 북한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었으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과거 북한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라소니, 무산흰족제비, 갯참서 등이 남한에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야생동물은 유사이래 인간에게 생태,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문화 창출에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전해져 오거나 기록된 이야기, 글, 노래, 춤 또는 그림 속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주인공 또는 주요 상징물로 등장한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야생동물은 사람을 돕거나 은혜를 갚았다는 동물,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었다는 동물, 사람을 괴롭혔던 동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세상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굴 벽화와 무덤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당시의 풍속 및 규범을 보여주고 있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희생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의 숭배 사상인 타부 또는 토템은 종교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소, 돼지, 개, 토끼, 양 등의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사육하면서 육류를 생산하고 농업에 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야생동물들은 가축을 약탈하였고 인간들은 포식자들과 투쟁을 벌이면서 청동기 및 철기 무기를 만들면서 금속문화의 발달을 가져왔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모피산업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이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애완동물로 발달하여 인간과 동물이 친구가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에 대한 재미있는 토속적인 이야기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생태적 내용을 기술하였다.

1. 호랑이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호랑이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잘 발달된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이 있어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우며, 진보, 독립, 모험, 투쟁 등의 속성을 가진 동물로 옛부터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엄, 용맹의 표본으로 매우 신성한 자리를 지켜왔다. 실제로 구비문학에서 호랑이는 죽은 사람, 죽은 고기, 병든 사람, 임신한 사람, 상주, 문둥이를 잡아먹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어도 머리만큼은 남기고 바위 위에 올려놓고 간다는 속신이 전한다. 또한, 사신(四神, 청룡·백호·주작·현무) 중 유



일한 실존하는 동물로서 특히 속담·민담·민화를 비롯하여 문학작품에까지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호담지국(虎談之國)이라고 까지 불렀고, 중국 문헌 <후한서>동이전에도 호랑이를 신으로 받들어 제사 지내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초에는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내다붙이거나 부적에 그려 넣기도 하고, 조정에서는 쭉뱀(쭉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무관의 관복에 용맹의 표상으로 호랑이 흉배를 달아주기도 했다. 글 하는 선비들도 필통이나 베개 등에 호랑이를 새겨 넣었다. 자식의 임신양명을 위해 산방(産房)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놓기도 하고, 기가 약한 사람에게 호랑이 뼈를 갈아 먹이는 한방요법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장가 갈 때 새신랑이 호신장구로서 장도(粧刀)나 주머니에 호랑이 발톱을 달거나 허리에 차기도 하고, 호랑이의 가죽과 수염도 신령한 힘이 있다 하여 호신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여인네의 장신구나 장식품에도 호랑이를 새겨 넣기도 했다.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1종이고 서쪽의 터키 동부에서부터 동쪽의 오호츠크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및 발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 지리적 격리에 따라 8개 아종(亞種)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중국 북동부 및 연해주의 호랑이와 함께 시베리아 아종으로 가장 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0년대에 들어와서 카스피 호랑이, 발리 호랑이, 자바 호랑이 등 3아종은 이미 멸종되었으며, 다른 아종들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국제적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백두산에서 전남 목포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서식하였으며, 조선말까지 경북궁에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비교적 적지 않은 개체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맹수로부터의 인명 및 가축의 피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포획에 나선 뒤로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 남한에서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개체가 마지막 호랑이이다. 다만 1940년대 초에 충북, 전북, 경남 등지에서 가축 및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 후에도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문은 여러 번 있었으나 확인된 적이 없어, 안타깝게도 남한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호랑이는 고산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멧돼지·사슴·노루·고라니 등 중·대형 동물을 잡아먹는다. 사냥을 할 때는 후각보다는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며 목표물의 옆이나 뒤에서 가능한 가까이 몰래 접근한다. 사냥감을 덮치는 동시에 쓰러트리고 목을 문다. 이후 사냥한 동물을 식생이 무성한 은신처나 물가로 끌고 가서 먹는다. 인도에서 호랑이가 12m를 끌고 간 들소를 남자 13명이 옮기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호랑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케 한다. 먹다 남은 사냥물은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어두고 몇일 동안 그곳을 찾아와 먹는다. ‘호환(虎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나 가축도 습격한다.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호랑이의 수는 매우 적고 하나의 습관적인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개체를 살인 호랑이라 부르며,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포수들을 동원하여 포획해 버린다.

먹이를 찾고자 보통 하루에 80~100km를 달린다고 하니 체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생활을 하며 행동반경은 500~4,000km²로 매우 넓어서 이미 자연환경이 상당히 파괴된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살만한 서식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분비물을 나무나 바위에 묻히거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발톱자국을 남기어 영역을 표시한다. 한 걸음은 보통 80cm이고 항상 뒷발은 앞발자국을 밟아 일직선이 된다.

2. 늑대

늑대는 세계적으로 1960년까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해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무분별하게 포획됨으로써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해수구제라는 명목으로 1,396마리를 포획했고 그 후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9년 경북 영주에서 새끼 9마리가 생포된 이후 관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멸종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늑대는 우리에게 약탈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많은 동화나 만화영화에서 늑대는 동물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동물로 묘사되어 왔고 일상생활에서는 가축에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늑대에 대한 인식과 달리 자연 속에서의 늑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니다. 늑대를 악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서양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때 서양에서는 늑대의 생활공간인 숲을 대대적으로 개간하는 바람에 늑대가 방목지로 밀려나면서 생존을 위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었는데, 이것으로 늑대를 사악한 존재로 여긴 것이다. <양치는 소년>이나 <늑대인간>은 그런 이유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원인을 생각한다면 늑대는 악의 상징도 사악한 동물도 아니다.

또한, 늑대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간섭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좋은 교훈을 남겼다. 일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늑대가 사슴 같은 수렵동물의 서식밀도를 떨어뜨리고 양 같은 가축에 피해를 준다고 하여 대



대적으로 구제한 결과, 사슴류의 밀도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오히려 또 다른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즉, 생태계에서 한 종이 없어질 경우 생태계 전반에 그 영향이 발생함을 발견하였고, 그제야 생태계에서 늑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수백억 달러의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늑대의 복원을 추진하는 등 야생동물 관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늑대는 깊은 산에는 살지 않고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지대 또는 개활지에서 산다. 100km에서 1,000km까지 방대한 영역을 활동무대로 대부분이 무리를 지어 살고, 젊은 개체들은 보편적으로 단독생활을 한다. 세력권이나 무리의 크기는 자연 상태의 먹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먹이가 많으면 보통 20마리 정도이며, 적으면 7마리 정도가 한 무리를 이룬다.

실제로 늑대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랄 정도로 우호적이고 사교적이며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늑대는 일부일처제를 고수한다. 그런데 번식은 암컷 리더와 수컷 리더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노루나 사슴, 멧토끼, 새 등 야생의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

므로 번식을 많이 해서 새끼가 많아지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늑대들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 법은 엄격하게 지켜진다. 만약 리더 몰래 교미를 하다 들키면 가차 없이 물어뜯어 쫓아내 버린다.

3. 여우

여인으로 둔갑한 여우가 길 가는 나그네를 해치고, 천년 묵은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우는 무섭고 교활하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동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전설일 뿐이다. 날씬한 몸매와 빠른 콧날을 지닌 여우의 외모가 일단 교활한 인상을 주고, 인가 주변의 야산에 살면서 죽은 동물을 먹으며 가끔 무덤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온 것이다. 특히 이야기 속에서 킁킁하고 음산한 분위기에 여우가 잘 등장하는 것은 밤에만 활동하는 여우의 습성 때문일 것이다.

여우를 살펴보면 재주 있고 약삭 빠르며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 같다. 서양에서는 오히려 여우의 꼬리 많고 지혜로운 면을 이야기로 삼은 것이 많다. 여우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주는 동물일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가에 침입하여 가축을 잡아먹어 경제적 피해를 주고 광견병을 전파하는 매개동물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들쥐를 잡아먹고 동물의 시체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질 좋은 모피를 제공하는 동물이다. 이 같은 가치 평가는 세계적으로 여우가 분포하는 북미, 아시아,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같은 경향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매년 많은 여우를 포획할 정도를 풍부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 전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여우가 분포하였고, 이후 비록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야산에서 여우가 번식할 정도로 국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체군은 유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후 보호대책 없이 서식지가 파괴되고 남획됨으로써



여우는 급격히 사라져 갔다. 특히 당시에 양곡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살포한 쥐약 때문에 이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여우가 먹게 됨으로써 더 많은 여우가 죽어나갔다. 1978년 지리산에서 1마리가 포획된 후 관찰 개체가 없다가 2004년 3월에 강원도 양구에서 1마리가 발견되어 생존의 희망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우는 육식을 주로 하는 잡식성 동물로 계절과 서식환경에 따라 먹이가 변한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들쥐나 뱀토끼 등 고기를 주로 먹으며, 여름에는 갑충류, 그리고 가을에는 과실류를 주로 먹는다. 1~2월의 추운 계절에 번식을 하는데, 여우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고수한다. 한 마리 암컷 곁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쫓아다니고 이 가운데 한 마리를 암컷이 선택하여 교미한다. 이때 경쟁자들인 수컷끼리는 비참한 결과가 생길 때까지 투쟁을 하기도 한다.

4. 반달가슴곰

곰은 구석기시대의 선인으로부터 근대 이전의 한민족에까지 역사, 문화,

종교적으로 신성시되어 온 동물이다. 건국신화에서 보여주듯이 반달가슴곰은 한민족에 있어 모신적 존재이다. 즉, 문화·역사적으로 약 오천년 전부터 이 터전 위에서 우리 선인들과 생활하여 왔다.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곰과 호랑이를 시험한 결과, 호랑이는 떨어지고 인내심 강한 곰만 여자로 변해 환웅의 아들을 낳았다. 그가 곧 단군왕검이니 곰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반달곰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자행된 해수구제(害獸驅除)라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남획되어 그 수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전쟁 후부터 1972년 수렵금지조치 전까지 20여 년 동안 곰의 쓸개인 웅담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리산 일대와 강원도에서 각각 100여 마리 이상 포획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더욱이 국내 웅담이 사라지자 국외에서 웅담을 구입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일례로 1990년대 말에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웅담의 90%를 한국 사람이 소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외국의 야생동물 보호론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기네 조상을 잡아먹는 무식한 국민이라 비난까지 하였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이 전세계 곰의 멸종을 초래하는 국가라 하여 차가운 눈총을 보냈다. 일부 외국의 NGO는 자기 나라 정부에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현재 살고 있는 반달곰의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생태학적 근거로 볼 때 몇 마리 남지 않은 반달곰은 근친교배로 유전자 다양성이 하락하고 결국 멸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 증식된 개체를 자연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공증식된 개체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먹이 찾는 능력이 약하여 먹이가 부족할 때 인가 근처로 내려와 문제를 일으켜 다시 잡히거나 자연에서 죽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도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야 성공할 것이다.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V자 문양을 지닌 반달곰은 주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 활엽수림에 서식한다. 일반적으로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나무구멍이나 동굴, 또는 갈라진 바위틈에서 잠을 자지만 좋아 하는 과실이 익는 시기에는 낮에도 활동한다. 둔하게 생긴 몸집과 달리 시속 40km로 1시간을 달릴 정도로 끈기가 대단하며,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고 마는 집착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벌집을 발견하면 벌들이 때로 달려들어 쏘아대도 기어코 벌이 들어 있는 벌집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만다. 물론 벌꿀은 아주 좋아 하는 먹이이긴 하다. 멍청한 사람을 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것은 곰의 이런 성격에서 나온 말이다.

반달가슴곰은 북극곰이나 불곰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행동이 재빠르고 나무에도 잘 오른다. 앞발에 붙은 강한 발톱으로 나무를 찍어 누르며 올라간다. 그래서 나무에 발톱 자국이 있으면 반달곰이 근처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은 네 다리로 걸어 다니며, 뒷다리로 서서 앞발바닥으로 싸우기도 한다. 곰의 시력은 별로 좋지 않지만 후각은 상당히 발달해서 1km 떨어진 곳의 먹이감이나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주로 나무 열매나 식물의 새싹, 무척추동물, 물고기, 작은 포유동물 및 시체를 먹지만 이런 먹이가 부족할 때는 들소만한 대형 동물의 목을 물어 잡아먹기도 한다.

먹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봄에는 식물의 새싹이나 버찌·가재 등을 즐겨 먹고, 여름에는 식물의 열매와 작은 포유동물, 곤충·무척추동물 등의 동물질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가을에는 꿀·도토리·머루·다래 등을 즐겨 먹는다. 도토리를 먹을 때는 나무 위에 올라가 지름 5cm 정도 되는 가지를 꺾어 새의 둥지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받치고 앉아 따먹는다. 이것을 ‘상사리’라 부르는데, 곰의 서식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흔적이다.

5. 대륙사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무사들이 사슴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수렵도가 그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들이 사슴을 사냥하여 조상들의 제사에 바쳤다는 얘기가 있으며,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하나의 활로 두 마리의 사슴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사슴은 우리의 자연에서 쉽게 보고 사냥하던 동물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사슴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녹용 때문이다. 사슴의 뿔은 매년 3~4월 경에 빠지고 새로 발생하는데, 이때 새로 나온 뿔을 약 2개월 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 뿔이 사람의 건강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져서 비싸게 거래된다. 그래서 우리의 농가에서는 녹용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 많은 사슴을 인공사육하고 있는데, 이들 사슴은 모두 미국, 뉴질랜드,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한 개체들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뉴질랜드의 경우, 사슴이 서식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도입한 개체를 증식하여 우리나라에 엄청난 양의 녹용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생동물 자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끔 하는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사슴과에는 41종의 사슴이 있다. 한반도는 꽃사슴이라 부르는 대륙사슴과 백두산 일대에만 서식하며 말사슴이라 부르는 백두산사슴 등 2종이 있다. 백두산사슴은 몸무게가 75~340kg으로 사슴속에서 가장 큰 종이며, 대륙사슴은 25~130kg으로 우수리 지방, 만주, 한국, 티벳고원의 동부를 포함한 중국의 대부분, 베트남 북부, 일본, 대만 등에 분포한다.



안타깝게도 남한에서 대륙사슴은 이미 멸종한 것으로 보는데, 사라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일제시대에는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남·북도에서 포획된 기록이 있다. 이 후 1950년대 초까지 소수의 개체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6·25전쟁 이후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밀생한 하층 식생이 있는 산림지대를 선호하지는 하지만 습지와 초지를 포함한 다양한 서식지에 잘 적응한다. 계절에 따라 700m의 고도를 왔다갔다하며 여름에는 겨울보다 더 높고 넓은 지역에 서식한다. 주로 어두워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활동을 하나 때때로 낮에도 활동을 하며, 활동영역이 600~900ha에 이른다.

대륙사슴은 큰 무리를 짓지 않고 작은 집단을 이루지만 한 개체씩도 종종 관찰된다. 특히 암컷 어미는 새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수컷 새끼들은 1~2세에 어미를 떠난다. 어미 수컷은 연중의 대부분을 거의 단독으로 생활하며, 발정기 후 뿔이 떨어졌을 때 함께 무리를 짓는다. 일부다처제의 사회구조로서 수컷들은 세력권에 12마리까지의 암컷을 거느린다. 여름에 수컷들은

세력권을 만들기 시작하며, 세력권의 경계를 오줌과 발로 땅을 긁어서 표식을 한다. 세력권 안에 침입한 다른 수컷들을 쫓아낼 때는 뽕과 발굽을 사용해 격렬하게 싸운다.

6. 멧토끼

“달에는 계수나무 아래서 떡방아 찧는 토끼가 살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이야기에서 토끼를 만나며 정답고 친숙한 감정을 느껴왔다. 그만큼 토끼는 우리에게 반가운 동물이다. 낙랑시대 유물에 새겨진 토끼, 달의 상징동물로서 두꺼비와 함께 투각된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시대의 토끼 토우, 조선시대 화가들의 토끼를 소재로 한 그림들, 토끼의 간 이야기를 다룬 <별주부전>, 동화와 동요에 이르기까지 토끼는 우리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징적 존재로 나타났다. 이야기 속의 토끼는 연약하지만 꽤 많은 동물로 등장한다. 그렇게 순진하고 겁이 많으면서도 영특함이 돋보이는 토끼의 성격은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성격과 비슷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멧토끼는 산림과 인접한 개활지의 억새나 관목이 무성한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밤에 활동한다.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해발 500m 이하의 야산에 산다. 행동권은 10~20ha로 아주 넓지만 이동할 때는 거의 일정한 통로를 이용한다. 그리고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단독생활을 한다. 초본류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천적이 너무도 많다. 육식동물인 호랑이, 늑대, 곰, 여우, 너구리, 삿, 올빼미, 수리부엉 등은 모두 토끼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멧토끼는 예민한 귀와 빨리 달릴 수 있는 뒷다리가 발달해 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는데, 앞다리를 들고 권투를 하듯이 싸움을 하며 때로는 뒷다리로 상대방을 차기도 한다. 싸움에서 이긴 한 마리의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는데 주로 밤에 이루어지며, 봄부터 가을까지 3~4회 계속된다. 이렇게 번식력이 왕

성하니 멧토끼의 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될 것 같으나 이들은 태어나서 1년 안에 50~80%가 죽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 개체군의 크기가 항상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멧토끼는 여우, 늑대, 오소리, 족제비, 삥, 너구리 등과 같은 많은 천적에게 많은 먹이를 제공하여 생태계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같이 번식률이 높으면 사망률 역시 높아지는게 자연생태계의 기본 원칙이다.